한국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비춰지는 해외 입양과 입양인

공동 패널 프레젠테이션: Tobias Hübinette, Su-yoon Ko and Jenny Na

제 6차 (사)해외입양인연대 연례 컨퍼런스
2005.8.20. 건국대학교, 서울

미디어의 해외입양

반세기역사가 지나며, 해외입양은 자연스럽게 한국 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남북한 간의 정체성 싸움이 격화되기 시작하면서야 입양 문제도 처음 미디어에서 독립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논의되기 시작했다. [1] 1970년대 전에는 미디어에 해외 입양이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았지만 해외입양이 복잡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1970에 북한은 남한이 서방에 아이들을 팔아 돈을 벌고 아이들 외에는 수출할 거리도 없는 국가라고 비난하며 나섰다. [2] 입양 부모들은 아동 학대자로, 백인 우월주의자로, 식민지 약탈자로 비춰졌고, 악덕한 미국 부모들이 입양한 남한 아이들의 선전용 사진이 북한 거리에 전시되고 전시회에 등장했다. [3] 미디어에서는 1970년대 내내 입양 프로그램 비난이 계속됐다. 1978년, 동경의 친북 일간지 한양은 국가의 큰 모욕적인 정책인 해외 입양에 민족적인 시각에서 공모론 공격을 가하였다. 이런 서양인, 입양부모에 대한 부정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이 대중 매체에서 지속되고 있다. 해외입양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1980년, 한국 입양아동의 수가 최절 정에 이른 때에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한국 미디어는 한국 아이들의 인신매매와 부적합하게 입양된 아이들과 관련한 졸속한 절차과정과 이송 중 탈수증으로 사망한 영아들에 관한 보고를 했다. [4]

1988 서울 올림픽 경기로 한국은 세계화 물결에 합류하기 위해 새로운 민주 산업국으로의 상징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큰 기회가 되었다. 세계의 언론인들은 최근까지만 해도 가난한 군사독재 국가였던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방 미디어는 한국의 입양정책을 인신매매라고 강조하며 보도하였다.[5] 미국 잡지 "진보 *The Progressive*" 에서 Matthew Rothschild는 1월 호에 "아기 수출 Babies for sale"이라는 특집기사로 논쟁을 시작하였다. 이 특집기사는 한국을 아이들을 팔아 돈 버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국가로 비추었다. 이 기사는 즉시 북한의 *The People's Korea* 에 연재되었고 한국의 좌파 일간지 "말"에도 번역본이 소개되었다. 이 잡지 커버에 실린 달러에 둘러싸인 한국아이의 모습은 한국 입양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자주 이용되고 텔레비전 다큐나 대중매체에 계속 등장하게 되었다.[6]

---

[1] A search at *Chosun Ilbo*'s electronic archive (http://archive.chosun.com/daliy.htm) (2004-12-17) using the keywords "*ibyang'a*" ("adopted child") and "*ibyang'in*" ("adoptee") gives only one hit before 1991 but hundreds afterwards. The only article being found before the 1990s is from August 17, 1961, and consists of an interview with the Korean adoptee Penny Kim and her adoptive family in Rhode Island, the United States.

[2] *Dagens Nyheter*, January 8, 1971.

[3] *Korea Times*, September 3, 2003.

[4] For adoption scandals and rumors about trafficking of Korean children for sexual exploitation, see *Korea Herald*, August 9, 1980, and *Joongang Ilbo*, August 6, 1986.

[5] *New York Times*, April 21, 1988;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2, 1988, and *Washington Post*, December 12, 1988.

[6] *Mal*, 3/1988, and *The People's* Korea, February 20, March 5, and March 12, 1988.

그 후 2년간, 한국의 신문에서는 격노한 사설과 흥분된 컬럼에서 서방 미디어에서 입양아동 수출국 1위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해외입양을 급격히 줄이거나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7] 처음으로 비공개 되었던 한국입양아 들의 통계가 공개되었고, 정책가들과 오랫동안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 대답을 회피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관료들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입양기관, 정부, 정책가, 생부모 등 모두 입양 수출국이라는 사실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논란은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성 단체, 시민 단체 및 종교 단체에 까지 퍼졌다. 입양 반대의 목소리는 정부가 1996년을 해외입양의 마지막 기점으로 발표하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0년 대 초, 한국 신문 사설에서는 해외 입양 수가 몇 년간 계속 줄어듬에 따라 해외입양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1994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 열심히 애쓴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해외입양 금지를 2015년으로 미루었다. [8] 미혼모와 그들의 아이들의 문제로 까지 확산된 이 입양 문제는 주요 미디어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많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미디어에 비친 해외 입양인

1970년대 후반부터 첫 성인 해외 입양세대가 개별적으로 또는 홀트(1975년 부터)나 스웨덴 입양 센터(Adoptionscentrum) (1983부터) 사후 입양 서비스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9]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에 대한 신문기사가 가끔씩 등장하기도 했다.[10] 현재의 뿌리 찾기라던가 모국방문과 같은 시초가 마련되기 시작했다.[11]

1980년대 말, 입양인들이 생부모나 가족, 또 무엇보다도 생모를 찾는 광고가 미디어에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광고들이 신문에 정기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12]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KBS의 1991년 이래 매주 가족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침마당에서 자주 해외 입양을 거론했고, 스튜디오에서 가족상봉을 보여주고 있다.

---

7 *Chosun Ilbo*, April 24, 1988, June 8, 1988, 13 November, 1988, February 12, 1989; *Dong-A Ilbo*, May 3, 1988, May 12, 1988; *Hankook Ilbo*, July 3, 1988, October 19, 1988, February 2, 1989, February 19, 1989; *Hankyoreh*, October 2, 1988, October 11, 1988, February 9, 1989, February 16, 1989, June 25, 1989; *Joongang Ilbo*, June 6, 1988; *Korea Herald*, February 25, 1989, September 9, 1989; *Korea Times*, October 13, 1989, and *Sigun Sosik*, 5/1989.

8 *Korea Herald*, June 14, 1994.

9 *Chosun Ilbo*, March 16, 1974, and *Korea Newsreview*, July 9, 1977, January 26, 1980, November 21, 1981, and September 25, 1982.

10 1970년대 전에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해외에 살고 있는 입양인들의 인터뷰가 있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Clemens란 혼혈아의 기사가 1959년 3월 4일 조선일보에 나왔고, 한국에 미군으로 돌아온 혼혈인의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1964년 8월 20일에 실렸고, 미국의 혼혈 입양인 Debbie 와 그녀의 입양가족들에 관한 특집기사가 1966년 12월 25일에 조선일보에 실렸다. 그러나 1970년대 전에는 혼혈 입양인은 한국인으로 여겨지지 보다는 아버지의 나라를 방문하는 아이들로만 여겨졌다.

11 *Korea Newsreview*, June 26, 1982, August 28, 1982, and January 8, 1983.

12 2000년도에 국민일보에만도 76개의 광고가 실렸다. 1960년대부터 이미 몇 혼혈 입양인들이 미디어를 통해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으나 초기에는 미국인 생부를 찾는 광고가 주를 이루었다.

[13] 2004년 KBS의 Happy Sunday에서는 생부모와 입양인들의 상봉이 입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서울 YWCA는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매년 방문 프로그램을 세워 당국, 협회 및 대학의 다른 수많은 기관들에게 블루 프린트가 되고 있다. 이 해외 입양인 프로그램으로 더욱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미디어에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 입양인이 조직적인 입양인 움직임과 함께 더욱더 미디어에 나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유명해진 입양인들은 처음부터 모범적인 입양인들 위주로 초점이 맞추어 졌다. 1995말 미 공군사관학교 학생이었던 한국 입양인 Brian Bauman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골수 기증자를 찾았던 사건이 있다.[14] 그로 인해, 1996년 상반기에는 Bauman가족 찾기 열풍이 불었고, 신문 기사,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이 보도가 매일 나갔다. 가족 찾기는 수천명의 입양을 보낸 가족들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연락하고 혈액은행에 등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끝났다. Bauman의 군인 배경으로 인해, ROK에서는 모든 장병들에게 등록하도록 지시했고, 마침내 기증자를 찾았다.

Bauman 사건 후, 입양 문제에 관해 좀더 성숙한 접근 자세가 천천히 꾸준히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해외입양 문제를 한국사회의 성 이슈, 장애인 문제, 혼혈 및 미혼모 자녀문제까지 연관 짓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국내 입양 도모 정책, 십대 임신의 금기화, 학교 성교육 부족과 가족 붕괴 후 기관에서 길러지는 점점 많아지는 아이들에 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이들과 정책자들의 글에서 분명히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자책은 언론인 조성관씨가 한국 입양아들은 유교의 체면살리기 문화와 가부장 적인 시스템의 희생양이며 한국 사회는 결코 해외 입양을 지속하는 한 서방 세계에서 현대 국가로 인정 받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에서 잘 나타나 있다.[15]

입양 이슈는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1십 5만명의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하면서 더욱 열기를 띄기 시작했다. 또한 영부인 이기호 여사도 해외입양인들의 후원자가 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하였다. [16] Adam King의 경우도 대통령 부부가 입양 이슈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2001년 4월 5일,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프라임 텔레비젼에서 9살난 미국으로 입양된 장애 소년 Adam King 이 서울 잠실 경기장에서 공을 던져 한국 프로 야구 리그 개막을 장식했다. [17] 보통 대통령이나 유명인, 미스코리아가 개막하는 경우에 대비되어 미디어에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특히 2002년 일본과 월드컵 공동 개최 때 미디어에서 입양에 관해 비판이 강했다. 계속되는 해외 입양은 한국을 후진 미개발국으로 비추었고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심지어는 관광 및 해외투자의 기회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18] 월드컵 동안, 한국팀의 성공을 이끈 신화 같은 존

---

[13] 2004년 8명의 입양인들의 가족찾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상봉이 이루어졌다. 2005년 4월 7일자 중앙일보 참조.

[14] KBS 의 일요 특집 "누가 Brian Bauman을 살릴 것인가? Who Will Save Brian Bauman?"와 같은 다큐가 방송되었고 Bauman의 삶과 그의 극적인 새생명 찾기는 자서전인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의 이야기,Brian Sungduk Bauman's Life Story"로 출간되었다. (1997).

[15] See Cho Song-gwan. 1998. A! Taehanmin'guk [Alas! Republic of Korea]. Seoul: Chajaknamu.

[16] Kookmin Ilbo, March 24, 2000.

[17] Brian Bauman 경우처럼, Adam King 또한 텔레비젼 다큐와 신문 특집 에서 크게 보도 하였고"Adam King's Family Story (2001)"이라는 자서전이 아동 서적으로 출간되었다.

재인 거스 히딩크감독도 한국 미디어에서 고향인 네덜란드에서 많은 입양인들을 만났다며 이 문제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2004년 8월 제 3차 한국 입양 모임이 15개국의 40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 미디어는 주로 더욱 활기를 띄기 시작한 한국입양 움직임과 그들의 존재에 관해 포커스를 맞추었다.[19] 역시나 이번에도 한국 신문 사설에서는 세계10대 경제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입양을 보내는 국가적인 수치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20]

1970대 초 이래로 입양 문제가 미디어에서 처음 제기된 후 입양 이슈는 국가적인 수치에 연관지어 토론되었고,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임기동안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서양에서 계속되는 해외입양과 해외입양인들의 존재로 시작된 부정적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입양 사업 철퇴, 사생아, 혼혈아, 장애아 편견 제거나 미혼모와 자녀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보다 더욱 부각되었다. 미디어에서는 한국 입양인들을 더운 개인적인 성공사례로 비추고 있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에서 보여지는 해외 입양은 부정적인 모습에 치중하였다.

한국 대중문화 속의 해외 입양

한국 입양 문제는 다양한 장르의 현대 한국 대중문화에 등장하고 있다. 텔레비전에서는 입양 이슈가 가끔 예상 밖의 상황에서 드러난다. 1990년대 한국을 여행하며 지역 사람들과 만나 노래를 부르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한 중년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노래를 스웨덴에 입양된 딸에게 헌사한다며 노래를 하였다. 또한 1998년 12월 "초대 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MBC역할극 프로그램에서 젊은 참가자들이 한국 입양 소녀가 모국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을 연출했다.

입양 문제와 입양자체가 소재로 쓰이고 허구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이런 입양 이슈를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입양이나 수양부모에게 길러지는 이야기를 그린 수많은 한국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1996년 SBS에서는 "연어가 돌아올때"라는 드라마를 방송했다. 이 드라마에서 여배우 황수정은 Cheri Straw라는 미국 입양인으로 한국에 와서 입양문제를 보도하는 기자 강채라는 남자와 얽히게 된다. 이 둘은 연인관계가 되어 결혼을 원하지만, 강채의 어머니는 완강히 반대를 하고 Cheri 의 한국 가족의 과거사에 대해 알기를 요구한다. 1996년도 해외 거주 한국인에 대해 커지는 관심가운데, 1.5라는 드라마가 미국 교포를 대상으로 MBC에서 방송되었다.[21] 이 드라마의 제목, 1.5란 6세때 미국에 건너와 이미 1세대와 2세대간에 놓인 재미 교포들을 의미한다. 1.5 의 주인공 중 인기 배우 신현준이 진호라는 한국 입양인으로 등장하는데 진호의 입양 부모님은 이론하고, 진호는 한국 유학생과 만나 사귄다.

---

18 According to a review of a report written by a high ranking Korean diplomat in *Korea Times*, March 22, 2004, the international image of Korea is still today dominated by the Korean War, the partition and international adoption.

19 *Dong-A Ilbo*, August 6, 2004; Chosun Ilbo, August 5, 2004; *Joongang Ilbo*, August 6, 2004, and *Korea Herald*, August 6, 2004.

20 *Joongang Ilbo*, August 5, 2004, and *Korea Herald*, August 9, 2004.

21 *Chosun Ilbo*, January 29, 1996.

1998년도 해외입양은 "여자라서 말한다"라는 MBC드라마에서도 소재로 등장하였다. 한 젊은 여성이 아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낼 수 밖에 없지만 아들은 마이클이 되어 한국에 영어 선생님으로 돌아오고, 어머니가 학생으로 등장한 드라마다. 한 힘든 과거를 보낸 프랑스 한국입양인의 이야기가 MBC 16부작 사랑에서 그려졌고 (1998), 재미교포를 소재로 한 SBS의 미스터 큐 (1997)라는 드라마에서도 한국 입양인이 등장한다. MBC의 호텔리어 (2001)에서 호텔 변호사 동혁은 아버지로 부터 제니라는 미국으로 입양된 여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2002년 1시간 동안 방영된 KBS 드라마 시티의 "깡패 아빠"에서는 한 아들을 해외입양 보낸 깡패가 아들을 다시 찾는다는 내용이다. 2004년 MBC 16부작 미니시리즈 "아일랜드"에서는 여배우 이나영이 아일랜드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정아라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녀의 미국 입양 가정은 그 후 아일랜드로 이사 가고 그녀의 입양 부모님의 아들인 남동생은 IRA에 연계되어 입양 부모가 살인 당한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아는 한국으로 오고 그녀의 친 남동생과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시리즈는 2004년도 30% 시청률을 끌은 KBS의 호주 부모님에게서 학대 받으며 자란 입양인 무혁이 등장하는 "미안하다 사랑한다"였다. 자신을 학대하는 무혁은 자신을 버린데 대한 복수를 친모에게 하고자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국에서 뚜쟁이일을 하면서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유명한 배우임을 알게 된다. 2004년 SBS의 멜로 드라마 "유리화"에서는 독특하게 일본에서 자란 한국 입양인 동주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이동건이 동주역을 맡는데, 동주는 일본의 보험회사 사장 아들로 입양되고 회사의 후계인이 된 후 어린시절 고아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찾으러 한국에 온다. 마침내 2005년 봄,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들, 미혼모들, 노처녀들과 이혼녀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한국 페미니즘 드라마가 등장했고, 그 중 MBC의 6월말 37.7% 시청률을 기록한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역으로 어머니가 한국 입양인인 혼혈인이 등장했다.[22] 헨리 킴이라는 이 역은 다니엘 헤니가 맡았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 하룻밤에 한국 광고에서 탑 모델로 인기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국 입양인이다.

입양 이슈는 또한 가끔 한국 연극과 뮤지컬에서도 등장한다. Brian Bauman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극작가 김정석씨는 오페라 뮤지컬 "파리, 잊혀진 자장가"를 1998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였고 많은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다. 이 뮤지컬은 이선희라는 배우가 한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고 생모를 찾는 이야기를 그린다.[23] 2000년도에 김정석씨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Raining Como Pass" 를 공연하면서 다시 입양 이슈를 다루었다. 뮤지컬 드라마라는 장르를 통해 한국 전쟁 당시 하나 밖에 없는 자식을 입양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선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고전인 오디푸스를 이용해 입양을 극적으로 다룬 홍원기가 작곡한 록 뮤지컬 스핑크스 (2002)는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주인공 타미가 한국을 방문하고 우연히 그의 생모를 살인하게 되고 그의 생모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입양 이슈는 한국 만화에서도 등장한다. 유명한 만화가인 박광수의 "광수 생각(1998)" 2권에 한국 입양인의 모습을 그린 만화 에피소드가 있다. 여기서 박광수씨는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한겨레의 만화가 박시백씨도 해외입양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으며, 연인완과 양경일의 7권으로 구성권 장편 만화 "아일랜드(1998-2001)"에서 주인공인 존이라는 뉴욕에서 자란 한국 입양인이 목사님과 마술사로 등장하는데 한국에 돌아와 친부모님을 만난다. 박경진의 2권으로 이루어진 만화 "하늘 위

22 *Chosun Ilbo*, June 30, 2005, and *Dong-A Ilbo*, June 16, 2005.

23 *Chosun Ilbo*, November 12, December 25, 1998; *Hankyoreh*, December 31, 1998, and *Joongang Ilbo*, December 14, 1998.

의 바다(1999)"에서 다른 미국 입양인 제이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제이크는 한국의 가족을 그리워 하는 고등학생으로 양부모님과 마찰을 겪는다. 하루는 한국 유학생 혜신이 제이크가 사는 도시에 공부를 하러 오고, 이 연인 사이의 과정이 주 내용이다.

가요와 영화에서의 해외입양인

한국 가요는 랩, 힙합, 하우스, 테크노, 재즈, 블루스와 레게 및 심지어는 펑크에 이르는 서양 장르를 접목하고 있다. 1997년 가장 인기 있었던 한국의 유명 록 밴드 신화는 "모국"이라는 노래를 실은 6번째 앨범을 발표하였다. "모국"이란 노래는 한국 입양인의 깊은 소외감, 외로움을 잘 그려내고 있다. 이 노래에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라는 모국을 생모와 연결짓는다는 것이다. 이 노래의 메시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생모와 만남으로써 소외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재즈 뮤지션 정원영은 그의 3번째 앨범 제목과 노래제목을 허공의 미국 입양인의 이름 "영미 로빈슨"이라고 지었다. 이 앨범의 커버에는 네덜란드 입양인 아티스트 미희 나탈리 르므완의 그림이 사용되었다.

1999년 6월 유명 댄스 그룹 클론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모든 해외 입양인들을 "강해지자"라는 콘서트에 초대하였다. 이 특별한 행사에서, 클론은 해외 입양인을 위한 "버려진 아이"라는 노래를 포함한 그들의 3번째 앨범 노래를 선사했다. "버려진 아이"의 가사는 느린 랩으로 로맨틱한 피아노의 가락에 맞추어 슬프게 전달된다. 이 앨범의 커버에는 한국에 돌아와 생모를 찾는 입양인에 대한 텔레비전 다큐를 보고 영감을 얻어 "버려진 아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된 사유를 적고 있다. "이 노래의 진실한 메시지가 마음 깊숙이 전달되고 있다". 이 노래에서는 한국의 생모를 그리는 입양인을 묘사하고 있다. 단순하며 깊은 메시지로 "버려진 아이"는 한국의 버려진 아이들의 운명을 가장 잘 나타낸 해외입양을 대표하는 노래가 되고 있다.

록 그룹 Sky의 1999년 데뷔 앨범 "Final Fantasy" 에는 "Eternity"라는 입양 이슈를 다룬 가장 유명한 곡을 싣고 있다. 한국의 올해 최고 뮤직 비디오 상을 수상한 이 곡의 뮤직 비디오에서는 캐나다의 다른 가정으로 입양간 친형제들과 어떻게 20년 후에 그들이 운명적으로 엮이는지를 묘사해 내고 있다. 청년이 되어, 한 형제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범죄자로, 또 다른 형제는 경찰로 등장한다. 범죄자인 형제는 그를 보살피고 잃어버린 다른 형제를 찾기 위해 도움을 주는 한 한국 이민여성을 알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된 다른 형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의 하나밖에 없는 친형제를 총으로 쏘게 되고, 이 뮤직 비디오는 예전 두 형제가 도착한 같은 공항에서 한 형제가 죽고 남은 경찰형제가 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난다.

2001년 10월, 유명한 그룹 H.O.T.의 전 멤버 문희준이 "K-pop"의 주요 멤버와 며칠 만에 판매순위 1위를 달성한 그의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타이틀 곡인 "Alone"은 외국에 입양된 외롭고 무기력한 입양인을 묘사하고 있다. 문희준은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Alone"은 해외 입양인의 슬픔과 불행에 초점을 맞춘 노래라고 발언하였다.[24] 문희준은 해외 입양인들이 슬픈 삶을 살고 있다며 입양인들의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을 그리고 싶었으며 한국 입양 관련 홈페이지를 연구하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앨범 커버는

24 *Donga Ilbo*, October 25, 2001.

팔에 금발머리 백인 소년을 안고 있는 문희준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 앨범의 커버를 통해 문희준은 서양과 비서양간의 권력 구조간에 한국인 양 부모가 백인 아이를 입양한 모습을 거꾸로 보여 입양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문희준의 이런 동양 양 부모가 서양 아이를 입양하는 반대되는 모습은 해외 입양에 내재된 패권주의와 서양 특권에 대한 당연시 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꼬집고 있다.

2004년에 유능한 여성 싱어 "Sol Flower"는 "10 Million Ways to Live" 으로 데뷰했다. 이 앨범에는 레게풍의 "Kiss the Kids "를 담고 있다. 이 뮤직 비디오에서는 한 캐나다로 입양된 수지라는 여성이 생모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며 20년 전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는 입양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해외 입양인의 빛 바랜 사진들이 삽입되어 있으며 앨범 커버 안에도 인쇄되어 있다. 같은 해, 남성보컬이며 작곡가인 이광필은 "백야"라는 앨범을 발표하고 그의 타이틀 곡은 북유럽에 입양된 15세 입양소년의 감정을 그린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25] 또한, 이 앨범에서 이광필은 3명의 유럽 입양인들과 한국의 대표곡 "아리랑"을 같이 불렀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이, 수많은 한국 영화에서도 입양이슈를 다루었다. 한국인의 핏줄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실제적으로 버려지거나 고아가 된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입양에만 국한해서 보면, 이미 1960-1970년대에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또 일부는 서양으로 입양된 해외입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26] 처음 예로써 1967년 강대진의 영화 "보은의 기적"에서 식민지화된 만주에서 살고 있는 일본 여성 하나코가 세계2차 대전 후 일본으로 도망가는 중 그녀의 딸 후미코와 헤어지게 되고, 그녀의 딸 대신 한국 고아 소년을 히데오라고 이름짓고 키운다. 20년 후, 하나코는 서울에 있는 히데오의 친부모를 찾으면서 그의 생부모들이 그녀의 친딸 후미코를 입양했음을 알게된다. 마침내, 히데오와 후미코는 결혼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화해를 상징하고 있다. 다른 예로 권영선의 "정과 정사이에(1972)"라는 영화에서 Michie 라는 한국 소녀가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인 브라운씨 가정에 입양되고 다시 일본의 이치가와 가정에 입양된다. 일본에서 그녀는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녀의 생모가 그녀를 찾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또한 여름 휴가를 미국의 양가족들과 보내고 겨울 휴가는 일본의 이치가와 양 가족들과 보내면서 그녀의 두 양가족들과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

해외입양을 다룬 초기 작품으로는 정진우 감독의 "사월이 가면(1967)"에서 문이라는 한국전쟁시 프랑스 가정으로 입양된 여성이 18년 만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고 서울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일하는 성헌이라는 남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지만, 문은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두영의 "죄많은 여인(1971)"에서 한국인 입양인 영훈은 미국 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유뷰녀가 된 그가 어린시절 좋아하던 강애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다. 이 영화에서 영훈은 강애를 다시 찾으려는 그의 노력의 허무함을 이해한다. 변장호의 액션 영화 "흑나비(1974)"에서는 부자 미국 사업가 가정에 입양되고 미국 남성과 결혼한 전쟁 고아 입양 여성인 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장은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친구들이 살해되었고 그녀의 미국 남편이 그 살인을 계획했음을 알고 그녀가 태어난

25 *Chosun Ilbo*, August 2, 2004.

26 An extremely rare example of the other way around is Jang Il-ho's *Bridge of Hyonhaet'an* (1963), where a Japanese girl is abandoned when the Japanese leave Korea and is adopted by a Korean couple. As an adult, she tracks down her biological parents in Japan but decides to stay with her adoptive family in Korea.

나라에서 그녀의 생을 자살로 마감한다. 영화감독 이두영은 "뉴욕 44가 (1976)"라는 영화에서 해외입양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동욱이라는 한국 남성이 뉴욕으로 와서 제인이라는 한국 딸을 입양한 부자 미국인 골동품 딜러를 만나러 오게 된다. 동욱은 헨리의 부를 얻게 되지만 제인 때문에 그가 버리고 배신한 미국 여성에 의해 살인 당한다. 또 다른 초기의 두 작품으로는 최현민의 "안나의 유서(1975)"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미군 기지에서 매춘을 하는 젊은 여자가 그녀의 딸 은미를 미국 가정에 입양 보내고, 그녀의 딸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무덤을 찾게 되며, 이원세의 "철새들의 축제(1978)"에서는 성희라는 고아원에서 자란 한국 여자가 그녀의 혼혈아들을 미국에 해외입양 보낸다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규형의 "어른들은 몰라요(1988)"에서 권투선수인 준이 고아 소년 민영을 키운다. 민영은 준에게 큰 문제가 되고 마침내 서양으로 입양되는 장면으로 끝난다. 남기남의 "태권도 소년 Ernie 과 김 사범 (1989)"이란 영화에서는 마이클이라는 한국 입양소년이 미국에 방문한 한국 사범에게서 태권도를 배운다. 1990년 2월 영화감독 김소영의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영화 제작 발표가 한국과 서방 미디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영화에서 이식수술이 필요한 자식에게 장기기증의 목적으로 미국 부부가 한국 아이를 입양한다는 내용이다.[27] 마지막에 이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킨 이 영화는 미국 대사관과 입양 단체의 대규모 반발로 인해 실제로 제작되지는 못했다. 1990년 박철수 감독의 "오세암"이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도 해외입양이 등장한다. 정채봉의 유명한 소설을 바탕으로, 고아자매 길순과 감리는 길순이 네덜란드로 입양된다는 사실을 알고 카톨릭 고아원에서 도주한다. 이 자매는 엄마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1970년대 고난의 급변하는 한국의 실정을 겪으며 마침내 불교 사찰에 도달하게 된다. 박호태의 멜로드라마 "빨간 앵두5 (1990)"에서는 미국 입양 여성 수라가 한국으로 돌아와 생모를 살해한 자에게 복수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그녀는 살해자가 자살하도록 만들지만 감옥에 가게 된다.

1991년 해외 배경으로 해외입양을 다룬 영화 중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장 길수 감독의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이 나왔다. 이 영화를 제작한 의도에 대해, 장 감독은 인터뷰에서 "스웨덴에 입양된 한 소녀의 성장기를 통해 입양 문제를 절실히 보여주겠다"라고 답했다.[28]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스웨덴으로 입양된 여성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 영화는 아이를 학대하는 양부모와 두 번의 자살시도와 끝없는 불행을 보여준다. 18세 수잔은 미혼모가 되어 혼혈아의 엄마가 된다. 하루는 유럽 입양인들에 관한 텔레비전 다큐를 만드는 팀을 이끄는 한 남성 기자가 스웨덴에 있는 수잔을 찾아온다. 이 다큐를 통해, 그녀는 그녀의 생모를 찾는다. 수잔은 2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고, 이 영화는 엄마와 딸이 서로 기자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1991년 유명 좌파성향의 감독 박광수의 "베를린 리포트"는 파리를 배경으로 입양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20대 초반의 한국 입양 딸 마리 엘렌을 둔 Berlin Report 의 나레이터는 베르나드씨의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을 담당하는 한국 해외특파원인 송민을 중심으로 한다. 마리 엘렌은 정신 지체여성으로 말을 할 수

---

27 *Boston Globe*, February 25, 1990; *Joongang Ilbo*, February 12, 1990; *Kookmin Ilbo*, February 9, 1990, and *Korea Times*, February 15, 1990.

28 *Seoul Shinmun*, January 13, 1991.

없으나 해외특파원은 조금씩 배경을 헤쳐나가기 시작한다. 베르나드씨는 혼자서 마리엘렌을 폐쇄시켜 길렀으며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녀가 실어증에 걸리게 된 것이다. 마리 엘렌은 루시앙이라는 친오빠가 있는데 또한 다른 프랑스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 루시앙은 마리 엘렌과 몇 번 연락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녀의 양아버지가 이를 방해하고 마침내 오빠는 베를린으로 떠난다. 송민이 마리 엘렌의 가장 큰 소원이 오빠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베를린으로 가서 그를 찾고 마침내 루시앙이 마리 엘렌의 양아버지를 살인한 것임을 알게 된다. 많은 어려움 끝에, 송민은 베를린에서 두 남매가 만나도록 주선한다.

장영실의 드라마 "러브호텔 비상구 (1993)"에서 거리 깡패인 고민은 미연을 강간하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된다.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콜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 중 한 여자가 바로 자신이 강간한 후 딸을 낳고 이제 막 해외로 입양을 보내려는 여자였던 것을 알게 된다. 고민은 바로 이 딸이 그의 딸임을 알고 미연과 화해하고 입양계획을 취소한다. 1995년 배용균의 실험작 "검으나 땅에 희나 백성"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한국 뿐만 아니라 서양 영화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29] H라는 40대의 한국전쟁 고아가 과거와 현재가 상존하는 꿈과 같은 호텔에 도착한다. 이 신비한 세계를 돌아다니며 H는 한국의 아픈 과거의 시련을 상징하는 다양한 영혼의 인물들을 만나고 그의 순례는 한국 사람 전체의 아픔과 정체성과 미래를 찾는 절실한 과정으로 대변된다. 1990대말 동안 해외 입양은 몇 영화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 예로 "오세암"의 박철수 감독이 제작한 " 산부인과(1997)" 라는 서울 산모실의 일상을 코믹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출산하는 장면에서 출산실 담당자가 입양기관에 전화를 하고 해외입양을 합의한다. 학생은 출산 후 아이를 보기를 거부하지만 떠날 때 소리를 지르며 아이가 외국이 아닌 국내에 입양되기를 원한다고 한다. 1997년 김범 감독의 페미니즘 성향이 담긴 "아기 판매"라는 코메디 작품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아들과 집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중류층의 직장여성 최진실을 통해 입양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진실은 아이 아빠가 육아 휴직을 내지 않으면 아이를 납치해 해외입양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도록 홀트에서 일하는 남자라고 가장하여 고용한다.

한국 현대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잔인하게 표현하기로 유명한 김기덕 감독은 그의 두번째 영화 "야생동물보호구역(1997)"에서 입양문제를 다루었다. 이 영화는 파리를 배경으로 3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이란 누구이며 누가 한국인인지를 묻고 있다. 남한사람인 창해와 북한사람인 홍산과 입양인 로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영화에서 이 세명은 파리에서 반복적으로 만나지만 창해와 홍산이 우정을 발전시키는 동안 로는 이런 그들의 통일 환상에 동참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로는 이 남한, 북한 동포를 죽이고 한국인과 서양인 사이에 갇힌 홀로 남은 한국 입양인을 남기고 끝을 맺는다. 이장수 감독은 "사랑(1999)"에서 한국과 디아스포라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로스 엔젤레스의 한국인과 재미교포와 입양인들이 외관적으로는 원만한 관계 속에 교류하는 코리아타운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 멜로드라마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명수는 한국에서 온 마라톤 선수로 LA에 경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 낯선 외국에서 갑자기 그는 팀에서 빠져나가 코리아 타운으로 와서 브래드라는 먼 친척을 찾는다. 그 곳에서 그는 어렸을 때 양부모에게서 가출하고 브래드가 임시 돌보고 있는 한국 입양인 제니를 만나게 된다. 브래드는 백인 미국사회에서 탈출한 한국 입양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신비한 인물로 친부모를 찾고 한국과 다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물이다. 마지막에 명수와 제니는 연인이 되고 그들의 관계는 한국과 입양인들과 전 세계

29 *Hankyoreh*, December 5, 1997; *Joongang Ilbo*, April 7, 1995, November 21, 1997, and *Kookmin Ilbo*, April 1, 1995.

모든 재외 한국인들의 집단을 초월한 화해의 상징으로 변한다.

박재호 감독의 에로 드라마 풍의 "서머타임(2001)"에서도 해외입양을 다루고 있다. "서머타임"은 한 미국 입양인이 한국의 생모를 찾으러 한국에 오고, 그의 가족사를 아는 여성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1980년 광주사태를 배경으로 좌파운동 학생인 도주하다가 어느 한 가난한 하류층 동네에 다다른다. 우연히 상호는 그가 거주하는 방 아래층 여성을 몰래 훔쳐보게 되고 배우 김지현이 연기하는 이 여성과 은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정사를 알게되고 상호를 죽이지만, 이 여자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고 아들을 낳지만 어머니가 자살한 후 해외 입양으로 보내지게 된다. 해외입양을 소재로 하는 다른 영화로는 김성수 감독의 코메디 영화 "영어 완전 정복 (2003)"이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신발 판매원 문수는 플레이 보이 지망생으로 미국으로 입양된 친 여동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자 영어를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는 역할로 나온다. 다른 해외입양을 다룬 영화로는 박찬욱 감독의 어두운 심리 스릴러인 주인공 오씨가 잔인한 음모의 희생량이 되는 "올드보이(2003)"가 있다. 15년 후에 갇혀있다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딸이 스웨덴으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다.[30]

결론을 말하자면 해외 입양과 한국 입양인을 다룬 주류 미디어의 성공적인 사례에 반항하고 도전한 이 모든 대중 문화 작품들은 해외입양을 1970, 80년대의 기성전통에 대한 대항을 기조로 삼고 있다. 기성 미디어를 통한 사설과 컬럼에서 나타낸 해외입양은 논란거리와 지탄거리가 되자만 그럼에도 사회악으로 대부분의 입양인들이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개척하고 있고, 대중문화에서 비추는 이미지에 따르면 해외입양은 서양의 착취와 억압의 상징이며 입양인들이 모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의 양부모님들이 끔찍하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으며 백인들인 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까지도 인종차별로 고문한다고 보여준다. 즉, 한국입양인들이 미디어와 대중문화에서 과장적으로 희생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 모든 조작된 대중문화 이미지와 대변은 전혀 입양인들의 동의 없이 대부분의 입양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실제적인 환경이나 여건이나 입양한 나라에 대한 애착감이나 요구나 꿈을 무시한 채 지나칠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있다. 그들은 한국입양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나 다변적인 경험과 주체적인 모습을 인식하기 보다는 모든 한국 입양인들의 운명을 전형적인 틀에 몰아넣고 있다.

30 According to *Joongang Ilbo*, Park Chan-wook originally planned to use a Swiss adopted Korean in his widely seen action film *Joint Security Area* (*Kongdong kyongbi kuyok*) (2000), instead of a second-generation mixed race immigrant Korean, which eventually was the case.